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7.(화) 14:00 배포 2026. 11. 17.(화) 11:00

‘26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지난 2주간(11.3일~11.17일) 진행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2026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IMF측 국문 번역본)
첨부 2: 2026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 원본(영문)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	책임자	팀 장	이재홍 (044-215-4840)
		담당자	사무관	안미진 (heungmijinjin@korea.kr)
			사무관	강현정 (31khj9004@korea.kr)
			연구원	이상원 (onnet@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첨부 1> 2026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IMF측 한글 번역본)

IMF 협의단, 대한민국 2026년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 완료

2026년 11월 17일

본 보도자료는 해당 국가 방문이후 IMF 협의단의 잠정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본 보도자료에 언급된 내용은 IMF 협의단의 견해이며, IMF 이사회(Executive Board)의 견해를 반드시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연례협의의 잠정적 평가에 기초하여 협의단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경영진 승인 후 IMF 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 및 결정할 예정이다.

- 글로벌 인공지능 (AI) 호황은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수출을 견인하며 한국 경제에 이례적인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이는 견조한 기업 실적과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경제성장률은 2026 년에 3.9%로 확대될 전망이며, 2027 년에도 3.3%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목표치인 2%를 상회할 전망이다. AI 호황의 성과(AI dividend)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조된 불확실성 속에서 수요 압력을 억제하는 동시에 특정 부문에 대한 경제적 집중 위험(concentration risk)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기 거시경제정책의 긴축 기조를 세심하게 조율해야 한다.

- 성장 동력의 다변화,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 완화, 성장에 따른 성과의 폭넓은 공유를 위한 구조개혁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더욱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 단장 코린 들레샤(Corinne Deléchat)가 이끄는 IMF 한국 협의단은 2026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2026년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협의를 마무리하며, 들레샤 단장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의 호황은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에 이례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견조한 기업 실적과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성장의 결실은 주로 첨단기술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 전반으로의 확산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최근 AI 호황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지역 불균형 심화, 기업과 근로자 간 불균등한 생산성 향상 등 장기간 지속되어 온 구조적 제약에 대응해야 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첨단기술 산업 수출 급증, 투자 반등, 견조한 소비에 힘입어 지난해 1.1%에서 2026년 3.9%로 상승할 전망이다. 2027년에도 첨단기술 산업의 소득 증가가 소비로 확산되고 한국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3.3%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투자는 중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의 대응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내수 회복세 강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2026년 2.7%, 2027년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경기 흐름과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단기 거시경제 정책은 고조된 불확실성 속에서 특정 부문에 대한 경제적 집중 위험(concentration risk)을 완화하고 수요 압력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율되어야 한다. 인플레이션 압력의 고착화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적절하다. 이와 동시에, 취약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선별적(targeted)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다소 긴축적인 재정 기조를 운용하는 것이 총수요 압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 안정화 수단으로서 '미래대응기금(Future Response Fund)'을 신설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이는 향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주택시장 압력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금융 부문의 일부 취약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당국의 선제적 조치는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환율 유연성은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 기제(mechanism)로 유지되어야 하며,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disorderly)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개혁은 가계 소비 활성화, 투자 기회 확대, 대외 충격에 대한 노출 완화를 통해 보다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근로형태 간 임금 격차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은 가계 소득과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성장 거점 육성과 비수도권 지역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공투자 등을 통해 광범위한 AI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는 선별적인(targeted) 노력은 보다 균형 잡힌 발전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생산적 투자 기회를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외 수요처 다변화와 재생에너지로의 지속적인 전환은 대외 충격에 대한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당국의 경제성장전략이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해 오랜 구조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

"IMF 협의단은 정부, 한국은행, 여타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 관계자들과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IMF 협의단은 방문기간 동안 생산적인 논의에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당국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IMF 이사회는 2027년 1월 중(잠정) 연례협의 보고서(Staff Report)를 논의할 예정이다."

<첨부 2> 2026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원본)

IMF Staff Completes 2026 Article IV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November 17, 2026

End-of-Mission press releases include statements of IMF staff teams that convey preliminary findings after a visit to a country. The views expressed in this statement are those of the IMF staff and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views of the IMF's Executive Board. Based on the preliminary findings of this mission, staff will prepare a report that, subject to management approval, will be presented to the IMF's Executive Board for discussion and decision.

- The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AI) upcycle is providing an exceptional boost to the Korean economy through record-high semiconductor exports, driving strong corporate earnings and fiscal revenue.
- Growth is projected to accelerate to 3.9 percent in 2026 and remain high at 3.3 percent in 2027, while inflation is expected to stay above the 2 percent target in the near term. Harnessing the AI dividend will require a carefully-coordinated tightening of near-term macroeconomic policies to contain demand pressures while mitigating concentration risks amid heightened uncertainty.
- Expediting structural reforms to broaden sources of growth, reduce vulnerability to external shocks, and ensure that growth benefits are widely shared would help promote more resilient and inclusive growth.

Seoul: A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eam, led by Ms. Corinne Deléchat, Mission Chief for the Republic of Korea, visited the country from November 3 to 17, 2026, to hold discussions for the 2026 Article IV Consultation. At the conclusion of the discussions, Ms. Deléchat issued the following statement:

"The global AI upcycle is providing an exceptional boost to the Korean economy through record-high semiconductor exports, driving strong corporate earnings and fiscal revenue. So far, gains have been largely concentrated in the technology sector, and will only gradually spill over to the broader economy. Sustaining recent gains from the AI upcycle would require addressing longstanding structural headwinds, including rapid population aging, widening regional disparities and uneven productivity growth across firms and workers.

"Real GDP growth is projected to accelerate to 3.9 percent in 2026 from 1.1 percent last year, driven by surging technology exports, rebounding investment and resilient consumption. Growth is projected to remain high at 3.3 percent in 2027, as income gains in the technology sector spill over to consumption, and investments to accelerate Korea's AI transformation start materializing. These investments are projected to lift potential growth over the medium term. While the authorities' response helped mitigate the inflationary impact of higher energy prices, inflation is projected to reach 2.7 percent in 2026 and 2.3 percent in 2027 owing to strengthening domestic demand. Uncertainty around the outlook is high, and risks to activity are tilted to the downside.

"With the economy operating above potential and inflation above target, macroeconomic policies in the near-term should remain carefully calibrated to contain demand pressures while mitigating concentration risks amid heightened uncertainty. Further monetary tightening is appropriate to prevent inflationary pressures from becoming entrenched. At the same time, a somewhat more contractionary fiscal stance would also help contain aggregate demand pressures, while providing targeted support to vulnerable households and firms. In this context, the creation of the Future Response Fund as a fiscal stabilization vehicle is welcome and shoul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countercyclicality of fiscal policy. Against a backdrop of heightened financial market volatility, the authorities' proactive measures to contain housing market pressures, enhance investor protection, and address pockets of financial sector vulnerabilities have helped preserve financial stability. Exchange rate flexibility should remain the primary mechanism for absorbing external shocks, and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s limited to preventing disorderly market conditions.

"Structural reforms should focus on making growth more resilient and inclusive by helping unlock household consumption, enhance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mitigate exposure to external shocks. Policies to raise labor force participation, address wage gaps across different categories of workers and expand social protection would help lift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Targeted efforts to support broader AI adoption and diffusion, including through regional growth clusters and productivity-enhancing public investment outside the Seoul region, would help support more balanced development and open new productive investment opportunities. Diversifying Korea's sources of external demand and continuing the transition toward more renewable energy would strengthen economic resilience to external shocks. The focus of the authorities' economic growth strategy on addressing some of these longstanding challenges, including through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s welcome.

"The IMF team exchanged views on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and the outlook with officials in the government, the Bank of Korea, other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sector representatives. The team would like to thank the authorities and other interlocutors for the productive discussions. The IMF's Executive Board is tentatively scheduled to discuss the Staff Report in January 2027."